

# 문무왕[文武王]

##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文武王), 신라의 수호룡이 되다

미상 ~ 681년(문무왕 21)



문무왕 표준영정

/ 전통문화포털(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

### 1 개요

문무왕(文武王, ?~681)은 신라 제30대 왕으로 재위 기간은 661년~681년이다. 아버지 태종무열왕이 시작하였지만 완수하지 못한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였다. 그가 완성한 삼국통일은 단순한 영토의 병합에 머무르지 않고, 고구려와 백제를 아울러 하나의 통합된 국가를 만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그는 죽음에 임해서도 나라를 생각하였고, 결국 죽은 이후에 동해의 용이 되어 신라를 수호했다고 전해진다.

### 2 가계와 생애

문무왕은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 김춘추(金春秋)의 장남으로 본명은 김법민(金法敏)이다. 그의 집안은 진흥왕(眞興王)의 둘째 아들 진지왕(眞智王)의 직계로 진골(眞骨) 골품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 태종무열왕이 진골로는 처음 왕위에 올랐고, 그 이후에는 태종무열왕 직계가 계속 왕위에 올랐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는 태종무열왕 직계가 왕위를 계승한 시기를 중대(中代)라 부르며 신라의 최전성기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어머니는 소판(蘇判) 김서현(金舒玄)의 둘째 딸이며 김유신(金庾信)의 누이인 문명부인(文明夫人) 김문희(金文姬)이다. 형제로는 김인문(金仁問), 김문왕(金文王), 김인태(金仁泰), 김노차(金老且), 김지경(金智鏡), 김개원(金愷元), 김개지문(金皆知文), 김거득(金車得), 김마득(金馬得) 등이 있고, 누이로 고타소랑(古陀炤娘), 요석공주(瑤石公主), 지소부인 김씨(智炤夫人 金氏)가 있었다. 왕비는 파진찬(波珍彦) 선품(善品)의 딸 자의왕후(慈儀王后)로, 둘 사이에서 태어난 신문왕(神文王)이 태자가 되어 그의 사후 왕위를 이었다.

그는 용모가 매우 뛰어났고 총명하며 지혜가 많았다고 한다. 650년(진덕여왕 4)에 당으로 건너가, 나당 군사동맹이 잘 유지되는데 많은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다져갔다. 아버지가 왕으로 즉위한 직후에는 4등 관등 파진찬(波珍彦) 지위를 받고 군사 업무를 총괄하는 병부령(兵部令)이 되어 부왕을 보좌하였다가, 655년(태종무열왕 2)에는 태자(太子)로 책봉되었다. 태자로 책봉된 이후에도 여러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특히 아버지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삼국통일의 첫